

관객들이 말하는 오리지널 '캣츠'의 환상적인 매력



7일 개막한 뮤지컬 '캣츠'(16일까지 광주문화회관) 공연은 광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오리지널 팀의 공연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시간 40분(인터미션 20분 포함)에 이르는 공연 내내 배우들은 최선을 다하는 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고양이들의 춤과 노래, 몸동작에 흠뻑 빠져든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과 기립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캣츠' 공연을 처음 접한 관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어봤다.



9일 '캣츠' 공연장인 광주문화회관을 찾은 관객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다이나믹한 군무... 기립박수 세례”

▲최미정(여·47)=지난 5월 친구 4명이랑 티켓을 끊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 '캣츠'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CD 들으면서 가사집도 다 외우고 그랬다. 고양이 캐릭터도 다 연구하고(웃음). '메모리'야 워낙 여러 가수가 불러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작품 속에서 보니까 극중 내용과 더 잘 어울려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다이나믹한 춤동작 역시 너무 매력적이었어. ▲김강민(여·17·국제고 1년) 조유정(여·17·송일고 1년)=중학교 때 학교에서 '캣츠' DVD를 보여줬는데 너무 멋있어서 꼭 보고 싶었다. 현장에서 2층 좌석을 구입해 봤는데 보는 내내 후회했다.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1층 좋은 좌석에서 볼 걸 하면서, 역시 DVD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모든 고양이들이 다 멋졌지만 색색한 고양이 럼 텃터

거가 너무 매력적이다. 아랫층 관객들에게 럼 텃 터거가 손도 잡아주는데 부러워 죽는줄 알았다. 정말 또 보고 싶다. ▲우제길(65)=무대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폐차를 형상화 하는 등 독특한 무대 디자인과 적절한 조명으로 멋진 작품을 보여줘 큰 감동을 받았다. 정말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고양이들이 무대를 꽉 채운 것 같고 스토리를 잘 몰라도 노래와 춤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공연이었다. 나이 든 세대인 나와 달리 곡이 끝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적으로 호응하며 기립박수를 치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행복해 했다. 결국 '캣츠'도 문화 상품인데 광주에도 이런 멋진 문화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형우(10·운천초 3년)=마법사 고양이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 30~40바퀴 돌 때 어지럽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서 나도 따라 했는데 앉아서 박수를 치는 것보다 고양이를 훨씬 많이 칭찬해주는 것 같아 고양이들의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극장 고양이 거스와 그리자벨라는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거스만 고양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 그리자벨라가 불쌍했다. 음악이 신나고 고양이들이 춤을 너무 잘 춰서 또 한번 보고 싶다. ▲김정아(여·28)=지난 2003년 천막극장 공연을 보지 못해 버리고 버리고 공연이었다. CD를 구입해 수도 없이 들으면서 정말 음악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들으니 생동감이 있어 더 좋았다. 개별 캐릭터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고양이들이 함께 춤추는 군무 장면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아직도 가슴이 뛰는 것 같다. 기회가 닿는다면 앞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공연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색색한 고양이 럼 텃 터거 너무 매력적
광주에도 이런 멋진 '문화 상품' 하나 있었으면...
음악도 신나고 고양이들도 춤을 너무 잘 춰... 아직도 가슴 뛰는것 같아

마흔살 작가들의 세상 보기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미완의 불혹·힘'展 29일까지

개성 넘치는 40대 젊은 작가들의 시각으로 해석한 광주의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이 '미완의 불혹·힘'전을 29일까지 개최한다. 외부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신에 기획자의 첫 발표무대. 전시기획자 임선진(전남대 인류학과 석사과정)씨는 금남로 분관이 젊은 기획자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

게했다. '마흔살 작가들, 아홉명의 분화된 정체성으로 살펴본 시대정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40대 작가들이 자기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발현시키려는가를 조명하는 무대다. 참여작가는 환경과 시대의 불화를 고민하는 김숙빈,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대를 고발하는 조정태, 서정적 풍경에 잊혀진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손부채, 자연



조정태 작 '인간세상'

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이동환·이규용씨를 비롯해 김병택 김태삼 나명규 박홍수씨 등 9명이다. 전시장에 별도로 마련된 '아카이브 흔적과 기억' 공간에는 작가들의 삶과 광주시 미술사를 반추하는 작업들이 선보인다. 문의 062-222-357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박물관대학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정운채)은 오는 15일~11월 17일까지 10주 동안 제12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문화예술의 고장 II-우리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박물관대학에서는 고려가요, 가사, 한문학, 극문학 등의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을 아우르는 강의가 진행된다. 참여 강사는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 윤여승 호남대 교수, 박준규 전남대 명예교수, 시인 문병란, 소설가 한승원씨.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활동비는 1만원. 문의 062-521-904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s
이제야 흥한 1세대!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악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마이피더 (15세) 최고급관
2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3관 라파에트 (15세)/마이피더 (15세)
4관 스타다스트 (12세)/미스터 브룩스 (18세)
5관 디스터비아 (12세)
6관 데쓰 프루프 (18세)
7관 척 앤 래리 (15세)
8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9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합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화려한 휴가 (12세)
2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
3관 마이피더 (15세)
4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5관 디워 (12세)
6관 만남의 광장 (12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낮고 높은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황토사랑 영화사랑 *에매:www.joya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리동편)
1관 디워 (12세)
2관 척 앤 래리 (15세)
3관 사랑방선수와 어머니 (12세)/미스터브룩스 (18세)
4관 마이피더 (15세)
5관 샐츠희 더 러브/사랑의 레시피 (연세)
6관 디스터비아 (12세)/만남의 광장 (12세)
7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8관 데쓰프루프 (18세)
9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10관 화려한 휴가 (12세)
*오늘 최대 주차장 *매일입시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해남점 (107번) 점관리 상영중 상영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척 앤 래리 (15세)
2관 만남의 광장 (12세)
3관 사랑의 레시피 (연세)
4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6관 마이 피더 (15세)
7관 디워 (한글지위/12세)/샬송가족, 더 러브 (12세)
8관 데쓰 프루프 (18세)
9관 화려한 휴가 (12세)
*리버사이드호출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특별석 회원만을 위한 전용영구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1588-9101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서포터즈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세)
2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3관 화려한 휴가 (12세)
4관 마이 피더 (15세)
5관 미스터브룩스 (18세)/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있습니까 (18세)
6관 만남의 광장 (15세)/디워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